

四象體質과 의사결정유형에 관한 研究

최민기 · 유준상 · 정명숙* · 한동윤 · 윤지영 · 송학수 · 윤우영 · 허재범

삼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삼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신경정신과

Abstract

A Study of Decision Making Styl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Choi Min-Gi, Yoo Jun-Sang, Jung Myoung-Suk, Han Dong-Youn,
Yoon Ji-Young, Song Hak-Soo, Yun Woo-Yeong, Heo Jae-Beom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

*Dept. of Oriental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

1. Objectives and Method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decision making style. Subjects were 69 men and 45 women.

Decision making style score, physical measurements and results were measured and analyzed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2. Results

Soeumin group had significantly high score in rational score compared with those of Soyangin. Soyangin group had significantly high score in intuitive score compared with those of Soeumin. Soeumin group had significantly high score in dependent score compared with those of Taeueumin.

According to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decision making style score, Sasang constitution were significant risk factors and ORs of Taeueumi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Soyangin in rational score, ORs of Soyangi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Soeumin in intuitive score, and ORs of Soeumi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aeueumin in dependent Score.

3. Conclusions

Soyangin had significantly high score in intuitive score. Soeumin had significantly high score in dependent score. We found many evidences that Soyangin is intuitive style and Soeumin dependent style in the text of 『Dongyi Suse Bowon』 and other research. But as far as Taeueumin was concerned, the result of Taeueumin's was not coincident with other research. More cases and research were needed to confirm the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type of Taeueumin.

This study result will be an important method that classify Sasang Costitution and consultation of student career decision making and studying attitude.

Key Words: Sasang Constitution, Rational Score, Intuitive Score, Dependent Score, Questionnaire

I. 序 論

東武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인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의 체질마다 특성을 서술하였다. 근본적인 체질의 특성은 李濟馬가 제시한 體形氣像·性質材幹·容貌詞氣·病證藥理를 통해 복합적인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다¹⁾. 性質材幹은 四象人의 性과 情의 개념인 性質과, 그 중 情이 人事로 표현되는 事務·交遇·黨與·居處로 나타나는 材幹을 말하며, 恒心은 四象人의 恒상 進·舉·靜·處하려는 심적 상태인 性氣와 恒상 雄·雌·內守·外勝하고자 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심적 상태인 情氣를 말한다²⁾하였다¹⁾. 이러한 性質材幹과 恒心은 각 체질의 심성과 심적 상태를 보여주며, 심성, 성격, 심리는 체질을 감별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Harren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에 있는 의사결정유형 검사 도구는 개인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상황과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수행하는 합리적 유형과,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정보 수집이나 논리적 과정 없이 수행하는 직관적 유형,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에 따른 개인적인 책임을 부정하고 타인의 영향을 받으며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의존적 유형의 3가지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²⁾.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각 개인의 의사결정유형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사상체질별 性質材幹, 恒心에 관련된 연구로는 각 체질별 심리, 성격 특성 및 유형에 관한 연구^{3,4)} 및 용의 마음의 구조, 유형

론과 사상인과의 비교⁵⁾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용의 정신 유형을 기본으로 하는 설문지(MBTI)나 성격특성 검사를 도구로 체질의 性質材幹과 恒心을 살펴보고 체질별 심성과 심적 상태를 알아본 것으로, 의사결정유형에 체질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각 체질과 의사결정유형의 특성에 관하여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각 체질의 性質材幹과 恒心에 관한 심성 및 심적 상태를 각 체질별 의사결정유형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상지대학교 본과 3학년과 4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체질 감별을 한 후 의사결정유형 검사 설문지를 작성한 남성 69명과 여성 45명, 총 1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상체질별 분포는 태양인 0명, 소양인 35명, 태음인 32명, 소음인 47명이었다. 남성에서는 소양인 18명, 태음인 24명, 소음인 27명이었고, 여성에서는 소양인 17명, 태음인 8명, 소음인 20명이었다(Table 1). 성별에 따른 체질분포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22).

2. 연구방법

1) 사상체질의 진단

사상체질음성분석기(Phonetic System for Sasang Constitution, (주)보이스윈, Korea)를 이용해 음성 녹음

Table 1. Study Population by Sex and Sasang Constitution

SC	Male	Female	Total
TY	0(0)	0(0)	0(0)
SY	18(26.1)	17(37.8)	35(30.7)
TE	24(34.8)	8(17.8)	32(28.1)
SE	27(39.1)	20(44.4)	47(41.2)
Total	69(100)	45(100)	114(100)

SC: Sasang Constitution, TY: Taeyangin, SY: Soyangin, TE: Taeumin, SE: Soeumin

을 분석해 나온 체질 결과와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SC II)의 체질 결과 및 望聞問切의 四診을 종합하여 일치하는 경우 해당체질로 인정하고 다른 경우 종합하여 사상체질전문가가 판정하였다.

2) 의사결정유형 검사 설문지(부록)

각 체질의 의사결정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Harren이 개발한 진로의사결정척도(ACDM)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유형 검사를 고향자⁶⁾가 한국의 현실과 문화에 알맞도록 개작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의사결정유형 검사는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3개 하위 척도를 가지며 각각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의 답에 “매우 그렇다(4점)”, “약간 그렇다(3점)”, “약간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4단계로 응답하게 하여 각 척도당 10에서 40점 범위를 가진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고향자⁶⁾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가 0.78~0.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80~0.87으로 나타났다(Table 2).

3. 통계처리

모든 범주형 자료들은 빈도로 표현하였고 연속형 자료들은 평균±표준 편차로 표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Windows용 SPSS Program(ver. 10.0)을 이용하였다. 집단 간 평균 값의 분포는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으로 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고 관련 요인에 대한 체질별 교차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으로 산출하고, $P < 0.05$ 일 때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Ⅲ. 研究結果

1. 연구 대상의 신체적 특성

연구 대상의 신체적 특성은 평균 연령 28.2세, 평균 신장 169.3cm, 평균 체중 62.1kg, 평균 BMI (Body Mass Index) 21.5kg/m²이었다. 신장, 체중, BMI에서 태음인 집단이 소양인 집단과 소음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남성에서의 신체적 특성은 평균 연령 29.3세, 평균 신장 173.7cm, 평균 체중 69.2kg, 평균 BMI 22.9kg/m²이었다. 체중과 BMI에서 태음인 집단이 소양인 집단과 소음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여성에서의 신체적 특성은 평균 연령 26.7세, 평균 신장 162.4cm, 평균 체중 51.2kg, 평균 BMI 19.4kg/m²이었다. 각 신체적 특성과 체질과는 유의성이 없었다(Table 4).

Table 2. Question Number and Reliability of Each Scale

Subordinate scale	Question number	Cronbach
Rational Score	1, 3, 5, 10, 13, 15, 17, 22, 25, 27	0.87
Intuitive Score	2, 7, 8, 11, 16, 19, 21, 23, 28, 30	0.84
Dependent Score	4, 6, 9, 12, 14, 18, 20, 24, 26, 29	0.80

Table 3. Physical Measurements of Study Population

SC	Age	Height(cm)	Weight(kg)	BMI [§]
SY	28.1±4.8	166.8±8.1	60.5±11.5	21.6±2.4
TE	28.8±6.6	172.3±6.4	70.0±12.1	23.4±3.0
SE	28.0±5.7	169.0±7.0	57.9±8.7	20.2±2.2
Sum	28.2±5.7	169.3±7.5	62.1±11.7	21.5±2.8
P	0.826	0.010*	0.000*	0.000*

[§]BMI: =Weight(kg)/{Height(m)}²

Table 4. Physical Measurements of Study Population by Sex

Sex	SC	Age	Height(cm)	Weight(kg)	BMI(kg/m ²)
Male	SY	28.9±4.9	172.9±4.7	69.2±9.0	23.1±2.1
	TE	29.3±7.2	174.8±5.1	75.3±7.5	24.6±2.1
	SE	29.4±6.6	173.3±5.0	63.7±6.2	21.2±2.1
	Sum	29.3±6.4	173.7±5.0	69.2±8.9	22.9±2.5
	P	0.973	0.414	0.000*	0.000*
Female	SY	27.3±4.7	160.3±5.5	51.2±4.2	19.9±1.2
	TE	27.0±3.9	164.8±3.5	54.0±8.6	19.9±2.7
	SE	26.7±4.0	163.4±5.0	50.0±4.1	18.7±1.3
	Sum	26.7±4.0	162.4±5.2	51.2±5.2	19.4±1.7
	P	0.626	0.073	0.183	0.055

Table 5. Score Distribution of Decision Making Styl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SC	Rational Score	Intuitive Score	Dependent Score
SY	27.7±4.9	28.6±5.0	22.9±4.3
TE	30.2±6.2	26.8±4.7	22.3±4.7
SE	30.8±4.3	24.4±4.4	24.9±4.5
Sum	29.7±5.2	26.4±4.9	23.6±4.6
P	0.023*	0.000*	0.030*

Table 6. Score Results of Decision Making Style by Sex

	Rational Score	Intuitive Score	Dependent Score
Male(N=69)	30.3±4.6	25.8±4.7	23.6±4.4
Female(N=45)	28.8±5.9	27.2±5.2	23.5±4.9
P	0.146	0.123	0.912

2. 사상체질과 의사결정유형 점수 관계

1) 체질별 의사결정유형 점수 분포

합리적 유형 점수에서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관적 유형 점수에서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의존적 유형 점수에서도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

2) 성별에 따른 의사결정유형 점수 분포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의 모든 의사결정유형의 점수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6).

3) BMI에 따른 체질별 의사결정유형 점수 분포

전체 대상자의 BMI의 평균은 21.5kg/m²이며 중위값은 21.2kg/m²으로, 21.19kg/m² 이하를 저

BMI 군으로 나누고 21.2kg/m² 이상을 고 BMI 군으로 나누었다.

저 BMI군에서 합리적 유형 점수는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관적 유형 점수는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의존적 유형 점수는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고 BMI군에서 합리적 유형 점수는 소음인,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관적 유형 점수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의존적 유형 점수는 체질별로 유의성이 없었다(Table 7).

4) 의사결정유형 점수 관련 요인

합리적 유형 점수, 직관적 유형 점수, 의존적 유형 점수의 중위값은 각각 30점, 26점, 24점으로 이 점수를 기준으로 각 유형을 높은 군과

Table 7. Score Distribution of Decision Making Styl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High BMI and Low BMI Group

BMI	SC	Rational Score	Intuitive Score	Dependent Score
BMI [§] <21.2	SY	27.8±6.3	28.7±5.6	22.0±5.0
	TE	24.7±6.2	31.7±3.4	20.1±3.5
	SE	30.2±4.6	24.9±4.5	25.2±4.7
	Sum	28.8±5.6	26.9±5.3	23.6±5.0
	P	0.039*	0.001*	0.014*
BMI ≥21.2	SY	27.7±3.5	28.5±4.5	23.7±3.7
	TE	31.7±5.3	25.5±4.2	22.9±4.9
	SE	32.1±3.4	23.3±4.0	24.3±4.0
	Sum	30.5±4.7	25.9±4.6	23.5±4.3
	P	0.004*	0.003*	0.588

[§]BMI: Body Mass Index

Table 8. Crude OR and Adjusted OR for Rational Score

Variable	Crude OR(95% CI)	Adjusted OR(95% CI)
Sex	Male	1.00
	Female	1.11(0.36-3.47)
Age		0.98(0.91-1.05)
BMI	<21.19	1.00
	≥21.2	1.78(0.56-5.71)
SC	SY	1.00
	TE	3.04(1.23-9.46)*
	SE	2.15(0.88-5.24)

*OR: Odds Ratio

Table 9. Crude OR and Adjusted OR for Intuitive Score

Variable	Crude OR(95% CI)	Adjusted OR(95% CI)
Sex	Female	1.00
	Male	1.00(0.31-3.19)
Age		1.03(0.96-1.11)
BMI	≥21.2	1.00
	<21.19	2.39(0.70-8.08)
SC	SE	1.00
	SY	4.26(1.63-11.08)*
	TE	1.90(0.76-4.70)

낮은 군으로 나누어 이를 종속 변수로 하고, 체질, 성별, 나이, BMI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 합리적 유형 점수 관련 요인

합리적 유형 점수에서는 사상체질을 독립변수로 한 Crude OR(95% CI)은 소양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음인이 3.04배 유의성 있게 높았다. 다른 변인으로 성별과 나이, BMI를 보정하였을 때도 소양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음인

이 3.13배 유의성 있게 높았다(Table 8).

(2) 직관적 유형 점수 관련 요인

직관적 유형 점수에서는 사상체질을 독립변수로 한 Crude OR(95% CI)은 소음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양인이 4.26배 유의성 있게 높았다. 다른 변인으로 성별과 나이, BMI를 보정하였을 때도 소음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양인이 5.15배로 유의성 있게 높았다(Table 9).

Table 10. Crude OR and Adjusted OR for Dependent Score

Variable		Crude OR(95% CI)	Adjusted OR(95% CI)
Sex	Male		1.00
	Female		1.36(0.42-4.38)
Age			0.95(0.88-1.03)
BMI	<21.19		1.00
	≥21.2		3.05(0.89-10.45)
SC	TE	1.00	1.00
	SY	1.77(0.67-4.68)	2.14(0.76-6.03)
	SE	3.93(1.52-10.16)*	6.45(2.11-19.76)*

(3) 의존적 유형 점수 관련 요인

의존적 유형 점수에서는 사상체질을 독립변수로 한 Crude OR(95% CI)은 태음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음인이 3.93배 유의성 있게 높았다. 다른 변인으로 성별과 나이, BMI를 보정하였을 때도 태음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음인이 6.45배로 유의성 있게 높았다(Table 10).

IV. 考 察

인간의 삶은 매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옷과 음식과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진로나 배우자와 같은 중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선택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결정은 개인에게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기도 한다⁶⁾.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연구는 Dinklage(1968)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그는 학생들의 교육, 직업 영역 등에서 그들이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하여 면접 후 그 자료에 기초해서 계획형, 직관형, 순응형, 운명론형, 충동형, 지연형, 번민형, 마비형의 8가지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했다⁷⁾. Dinklage는 8가지 유형 가운데 계획적 유형이 가장 효과적이며 직관적인 유형은 다음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그 외 다른 유형들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⁸⁾. 이와 같은 Dinklage의 분석은 분류된 의사결정행동이 여러 종류의 의사결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따라서 특성개념의 중요성을 제시하여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지게 하였다⁹⁾.

Dinklage의 의사결정유형의 개념을 진로선택에 적용시켜 진로결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으며 이들 중 Harren의 업적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¹⁰⁾. Harren은 Dinklage가 분류한 의사결정유형을 재분류하여, 개인이 의사를 결정할 때 합리적인 정도와 정의적인 정도,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도에 근거하여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²⁾.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자아나 상황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사려 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한다¹¹⁾. 즉, 각 개인이 주위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판단 후 결정을 내리는 유형이다.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은 의사 결정시 자아나 상황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으로 현재의 감정을 중시하고 결정을 예견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환상을 이용하며 직관적 의사 결정자는 의사결정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환상이나 감정 및 상상력을 이용한다¹¹⁾. 즉, 정보 수집이나 분석에 그리 시간을 들이지 않게 되고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한 후 과감하게 실행과정을 거치게 되는 유형이다.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은 의사 결정시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외부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유형으로 의존적인 의사 결정자는 타인의 기대와 요구 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의사를 결정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가령, 부모나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수용한다. 의존적 의사 결정자는 수동적이고 동조적이며, 사회적 승인을 받으려 노력하고, 자기가 처한 환경을 제한되고 한정적으로 지각한다¹¹⁾. 즉, 결정시 자세가 수동적이며 순종적으로 되며 불안감을 지닐 수 있는 유형이다.

위의 의사결정유형을 진로 발달이론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유형으로 다루기도 하고, 일상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유형으로 다루기도 한다. 진로 의사결정 이론은 진로의 선택이 결국 하나의 의사결정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사결정유형이 직업선택에 적용되면 그것이 진로 의사결정유형이 된다. Harren은 진로와 관련지어 진로 의사결정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그것을 수정 보완하면서 다시 일반적인 의사결정유형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유형도 결국 다른 일상사의 의사결정유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¹²⁾.

이러한 합리적,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은 용의 심리학적 유형에 해당되는 정신의 각 특수 기능 유형과 유사하다. 용의 정신의 기능은 사고, 감정, 감각, 직관 기능으로 분류되고 사고와 감정 기능을 합리적 기능, 감각과 직관 기능을 비합리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이 각 기능을 구성하는 두 기능은 서로 극을 이루어 상극 관계를 이루는데 사고와 감정 기능은 두 기능 모두 正, 不正, 快, 不快의 판단을 내리는 기능인데, 판단 과정이란 이치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어서 합리적 기능에, 감각과 직관은 이성적 고려를 거치지 않은 직접적인 인식이므로 비합리적인 기능에 속한다⁵⁾.

이러한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의 4가지 정신 기능 특징을 성진혁 등⁴⁾, 박희관 등¹³⁾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사고 기능은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연관시키는 기능이며,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인과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 분석적이고 객관적이며 정의와 공정성의 원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비판적인데 반해 감정 기능은 상대적인 가치와 문제의 장점을 고려하여 의사를 결정하여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가치를 더 중

히 여긴다. 감각 기능은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하여 관찰되는 인식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통해 이루어지는데 반해 직관 기능은 통찰을 통해 가능성, 의미, 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육감이나 예감 또는 창의적인 발견과 같이 돌발적으로 의식에 떠오르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사고 기능, 감정 기능, 감각 기능, 직관 기능 중에 의사결정유형의 합리적 유형은 사고 기능과 감각 기능과 유사하고 직관적 유형은 감정 기능과 직관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의사결정유형과 용의 심리학적 유형과의 유사성은 이번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입증하는데 전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상지대학교 한의학과에 재학중인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상체질음석분석기(PSSC)와 사상체질분류설문지(QSCC II)를 사용하여 사상체질전문가가 체질을 결정 후 의사결정유형 검사 설문지를 작성한 남성 69명, 여성 45명, 총 1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을 보면 연구대상 전체로 보았을 때는 신장, 체중, BMI가 체질별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는데(Table 3) 남녀로 구별시 남자에서 체중과 BMI가 체질별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나 여자에게서는 체질별로 유의하게 차이 나는 항목이 없었다(Table 4).

체중, BMI가 사상체질중 태음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큰 것은 태음인의 장부대소(臟腑大小)는 간대폐소(肝大肺小)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간 기능이 발달하여 흡수하는 기운은 강하지만 폐의 내뿜는 기운이 약한 상태에서 움직이기 싫어하는 태음인의 속성상 비만으로 진행되기 쉬운 것이라 볼 수 있다¹⁴⁾.

체질별 의사결정유형을 본 연구에서는 4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째로 각 체질과 3종류의 의사결정유형별 평균 점수의 관계 분석으로 합리적 유형 점수에서는 소음인이 소양인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Table 5). 사상체질과 용의 심리학적 유형간의 연관성에 대한 박희관 등¹³⁾의 연구에서 소음인은 내향적 감각형이고 사고적 인식형 경향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는 앞에서 합리적 의사

결정 유형의 성향이 융의 심리학적 유형 중 사고 기능과 감각 기능과 유사하고 실제 소음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합리적 유형 점수가 유의성 있게 높게 나온 것을 뒷받침한다. 또 박효인 등³⁾의 사상체질분류와 성격특성검사의 비교분석을 통한 연구에서도 소음인은 일 처리의 계획과 조직화를 잘하고 실천능력이 뛰어나며, 자신의 윤리적인 행동기준에 충실해서 자신의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고 도덕적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목표달성에 열망을 갖고, 목적 지향적이며, 부지런하며, 인생의 목표나 방향도 뚜렷하며, 행동하기에 앞서 심사숙고한다고 하여 소음인의 합리적 유형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QSCC II¹⁵⁾에서 소음인에 해당되는 문항인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단정하고 신중하다” 와 『東醫壽世保元』¹⁾ 「四象人 辨證論, “少陰人 性質 長於端重 而材幹 能於黨與” 조문은 합리적 유형 점수가 높게 나온 소음인의 특성을 나타내준다.

직관적 유형 점수에서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 박희관 등¹³⁾의 연구에서 소양인은 외향적 감각형이고 감정적 인식형의 경향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는 앞에서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의 성향이 융의 심리학적 유형 중 감정 기능과 유사하고 실제 소양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직관적 유형 점수가 유의성 있게 높게 나온 것을 뒷받침한다. 또 박효인 등³⁾의 연구에서도 소양인은 물건의 정리나 일의 규칙적인 진행이나 실행이 어려운 편이고 전체적으로 성실성은 떨어져서 성취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 조직, 실행하는 실질적인 과정에서 취약하다. 학업 성취도, 직업 수행도가 낮을 수 있다고 하여 소양인의 직관적 유형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QSCC II¹⁵⁾에서 소양인에 해당되는 문항인 “일을 벌여 놓기만 하지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다”, “민첩하고 융감하다”,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일을 벌여만 놓고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행동이 경솔한 편이다”,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 “싫증을 잘 느끼며 체념을 쉽게 한다” 와 『東醫壽世保元』¹⁾ 「擴充論, “少陽人 性氣 恒欲舉而不

欲措”, 「辨證論, “少陽人 恒有懼心 懼心寧靜則居之安 資之深而造於道也” 조문은 직관적 유형 점수가 높게 나온 소양인의 특성을 나타내준다.

의존적 유형 점수에서도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 이러한 결과도 박효인 등³⁾의 연구에서 소음인은 막연한 걱정, 불안, 긴장 두려움의 정도가 높아서 자주 긴장되고, 불안 초조하다.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을 의식하고 불편감을 많이 느끼며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서 불안과 무력감을 느낀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지닌다고 하여 소음인의 의존적 유형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QSCC II¹⁵⁾에서 소음인에 해당되는 문항인 “평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다”,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와 『東醫壽世保元』¹⁾ 「辨證論,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不安定之心 寧靜則脾氣 即活也” 조문은 의존적 유형 점수가 높게 나온 소음인의 특성을 나타내준다.

둘째로 체질에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 간의 의사결정유형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이러한 결과는 의사결정유형이 개인의 성별, 학년과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행된 많은 연구들에서 의사결정유형에서 성차(性差)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실제적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외국 연구^{16,17)}와는 일치하지만 김영희¹⁸⁾의 연구에서는 한국형 성격할검사에서 의존적 특징이 여성성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결과와 연관시켜 볼 때 의존적 유형에서는 여성에게서 높게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많은 대상자 확보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로 전체 대상자의 BMI의 중위값은 21.2kg/m²으로 이를 기준으로 고 BMI 군과 저 BMI 군으로 나눈 후에 각 군에서 체질과 의사결정유형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다. 저 BMI군(<21.19kg/m²)에서는 합리적 유형 점수에서는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관적 유형 점수에서는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의존적 유형 점수에서는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고 BMI군($\geq 21.2\text{kg}/\text{m}^2$)에서는 합리적 유형에서 소음인과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관적 유형 점수에서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의존적 유형 점수에서는 체질별로 유의성이 없었다. 이것은 BMI 값이 각 체질별에 따른 유형 점수 유의성에 혼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로 합리적 유형 점수, 직관적 유형 점수, 의존적 유형 점수의 중위값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유형을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나누어 이를 종속 변수로 하고, 체질, 성별, 나이, BMI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합리적 유형 점수에서는 사상체질을 독립변수로 한 Crude OR(95% CI)은 소양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음인이 3.04배 유의성 있게 높았다. 다른 변수인 성별과 나이, BMI를 보정하였을 때도 소양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음인이 3.13배 유의성 있게 높았다. 이는 각 유형별 평균 점수 비교와는 다르게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하여 합리적 유형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박희관 등¹³⁾의 연구에서 태음인은 내향적 사고형이고 감각적 인식형의 경향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는 앞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의 성향이 융의 심리학적 유형 중 사고 기능과 감각 기능과 유사하고 실제 태음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합리적으로 유형 점수가 유의성 있게 높게 나온 것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박효인 등³⁾의 연구에서는 태음인은 물건의 정리나 일을 규칙적으로 진행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급해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이나 말로 옮겨 버리나 예상 밖의 결과를 쉽게 도출해 내거나 이를 매끄럽고 신속하게 해낼 때도 있다고 하여 태음인이 오히려 직관적 유형에 해당되는 것을 뒷받침한다.

즉, 태음인의 경우 소양인, 소음인에 비하여 상관되게 보여지는 심리, 성격의 특성이 없어 보인다.

직관적 유형 점수에서는 사상체질을 독립변수로 한 Crude OR(95% CI)은 소음인을 기준으로 했

을 때, 소양인이 4.26배 유의성 있게 높았다. 다른 변수인 성별과 나이 BMI를 보정하였을 때도 소음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양인이 5.15배로 더욱 유의성 있게 높았다. 이는 각 유형별 평균 점수 비교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의존적 유형 점수에서는 사상체질을 독립변수로 한 Crude OR(95% CI)은 태음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음인이 3.93배 유의성 있게 높았다. 다른 변수인 성별과 나이 BMI를 보정하였을 때도 태음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음인이 6.45배로 더욱 유의성 있게 높았다. 이는 첫번째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의사결정유형에 있어서 소양인이 타른 체질에 비하여 직관적 유형에 해당되고, 소음인은 다른 체질에 비하여 의존적 유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 유형의 경우 단순히 체질과 합리적 유형의 평균 점수의 비교 분석시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하여 높았으나 여러 성별, 나이, BMI의 변수를 보정했을 때는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높았다. 앞서 태음인에 대한 심리, 성격적 특징이 서로 다른 결과로 각각의 연구^{3),1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태음인의 심리, 성격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생각한다. 또한 보다 더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 대상에서 태양인이 빠지면서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만의 연구가 되어 태양인의 심리, 성격의 특징과 다른 체질과의 차이를 알아보지 못한 점과 연구 대상의 전체 수가 많지 않아 체질간, 성별간의 비교분석이 충분치 않았던 점이 아쉽게 생각된다. 만약 태양인이 포함된다면 합리적 유형에서 태음인과 소음인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태양인과 소양인이 직관적 유형의 연구에서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유형을 통해 살펴본 각 체질의 심리, 성격의 특징은 사상체질 분류에 있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사용된다면 체질분류 설문지 개발 및 체질 진단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결정이나 학습

성향에 각 체질별 특징을 이해하여 각 개인 체질에 맞는 효율적인 상담 및 안내 도구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V. 結 論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의사결정에 있어 소양인은 직관적 유형이 높고 소음인은 의존적 유형이 높았으며 이는 『東醫壽世保元』¹⁾의 조문이나 이전 연구들^{3),13),15)}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었으나 태음인의 경우는 일정하게 정해진 유형이 없었다. 따라서 태음인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체질별 의사결정유형과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특히 소양인과 소음인의 체질 감별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결정이나 학습 성향에 각 체질별 특징을 이해하여 각 개인 체질에 맞는 효율적인 상담 및 안내 도구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VI. 參考文獻

1. 송일병 외 16인. 사상의학, 집문당, 2004;164-165, 729-730, 643.
2. Harren, V.H..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79;14:119-133.
3. 박효인, 이진인. 사상체질분류검사와 성격특성검사의 비교분석을 통한 사상체질별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 104-122.
4. 성진혁, 한국MBTI연구소. 사상체질의학의 심성과 MBTI 성격 유형의 설문 비교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156-164.
5. 김인태, 고병희, 송일병. 용의 마음의 구조, 유형론과 李濟馬의 知人論, 四象人과의 비교 고찰. *사상의학회지*. 1996;8(2):95-116.
6. 고향자.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2.

7. Dinklage, L.B. Decision strategies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968.
8. Cook, D.E. & Harren, V.A. Relationships among decision making styles and career related variables. Paper presented as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vention, New york. 1979.
9. Phillips, S.D., & Pазienaz, N.J.. History and theory of the assessment of career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In W.B & S. H. Osipow,(Eds), *Career decision making Hillsdale, NJ: Erlbaum*. 1988:1-31.
10. 이재창, 유계식. 성취동기, 성역활정체감, 진로결정유형간의 관련분석과 이들 변인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1996;13: 111-145.
11. 노재건, 김익규.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998;7(1):75-123.
12. 서우석. 高等學校 학생들의 進路意思決定과 關聯變人.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4.
13. 박희관, 이종화. 이체마의 사상체질과 용의 심리학적 유형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8;10(2):41-50.
14. 양상묵. 원주 코호트에서 사상체질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율과 관련 요인.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15.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표준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5; 7(1):187-246.
16. Lunneborg, P. W.. Sex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8; 25:299-305.
17. Pinder, F.A. & Fitzgerald, P.V..The effectiveness of a computerized guidance system in promoting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83;21:126-135.
18. 김영희. 한국청소년의 성역활정체감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0.

[부 록] 의사결정유형 검사 설문지

순서	문 항	매우 그렇다 4점	약간 그렇다 3점	약간 그렇지않다 2점	전혀 그렇지않다 1점
1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2	나는 내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매우 독특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3	나는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				
4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친구들이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시한다.				
5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결과까지 고려한다.				
6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다.				
7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재빨리 결정을 내린다.				
8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나 자신의 즉각적인 느낌이나 감정에 따른다.				
9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한다.				
10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시간을 갖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				
11	나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철라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의해 결정을 한다.				
1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는 의사결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				
13	나는 중대한 의사결정문제가 예상될 때, 그것을 계획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14	나는 의사결정을 못한 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15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들을 다시 살펴본다.				
16	나는 의사결정에 관해 실제로 생각하지 않지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17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신중한 계획을 세운다.				
18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19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마음이 가장 끌리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				
20	나는 인기를 떨어뜨릴 의사결정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21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예감 또는 육감을 중요시한다.				
22	나는 조금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올바른 의사결정임을 확신하고 싶기 때문이다.				
23	어떤 의사결정이 감정적으로 나에게 만족스러우면 나는 그 결정을 올바른 것으로 본다.				
24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				
25	종종 내가 내린 각각의 의사결정을 일정한 목표를 향한 진보의 단계들로 본다.				
26	내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친구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27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그 결정을 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답을 알고 싶다.				
28	나는 "이것이다"라는 느낌에 의해 결정을 내릴 때가 종종 있다.				
29	대개의 경우 나는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30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을 갖기보다,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 대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